

[ 기획 ]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그마워요 당신의 땅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2부> 코리안 드림 꿈꾸는 그곳에선

9 필리핀-한국행 기다리는 젊은이들

■ 필리핀 해외취업청 한국 입국자 '사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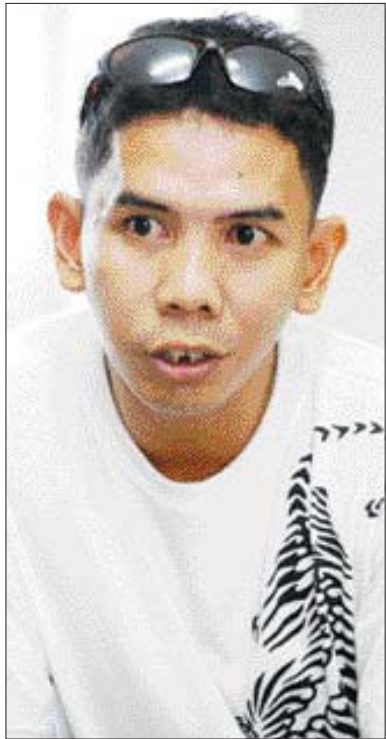
“약속의 땅 한국, 생각만해도 설렙니다”

신규취업 랜다 (32·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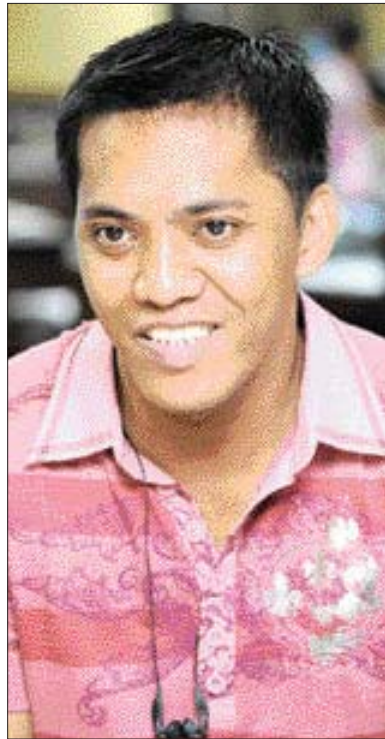
“한국은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다. 3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많은 경험도 쌓겠다.” 한국 입국을 눈앞에 둔 랜다(32)씨는 “한국에서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최근 6개월간 한국어 공부에만 매달려 왔다”며 “마침 한국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있어 늦어도 한 달내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랜다씨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

신규취업 마이클 (31·남)



“연수생이 아닌 정당한 노동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갈 수 있게돼 기쁘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신규 취업자 마이클(31)씨는 “한국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응해서 동생들의 학비를 내는 등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취업 로페즈 (36·남)



“3년간에 걸친 노동의 대가로 고향에 집을 샀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한국으로 다시 간다” 필리핀 출신 재고용 노동자인 로페즈(36)씨는 “한국 업체와의 재계약으로 3년을 더 일할 수 있게돼 기쁘다”며 “마닐라 외곽에 40만페소(한화 930만원)짜리 집을 산 것만 떠올려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로페즈씨는 “마닐라에서 4년째 대

“정부 방치·노동자들 조바심이 문제  
브로커에 돈 주지 마라”

“필리핀 정부가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는 등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 노동자들 역시 한국으로 가겠다는 일념에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필리핀 마닐라의 해외취업청(POEA)에서는 ‘한국행’을 앞둔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측의 ‘사전 교육’이 한창이었다. 이날 30여명의 현지 젊은이들은 한국 입국을 2~4주 가량 앞두고 송출기관 직원의 설명을 듣는 데 여념이 없었다. <사진 위>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 체류시 보험이나 임금 등 근로자의 권익·인권 보호장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브로커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필리핀 정부의 송출과정에 대한 개선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브로커들이 여전히 기습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면접조사 결과 필리핀 노동자 가운데 54.6%가 대리인 등 중개인의 개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리인 고용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38.1%에 그쳐 필리핀인들은 여전히 한국 입국에 브로커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석진(57) 산업인력공단 필리핀 지사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의 인력송출 과정상 브로커는 결코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장은 또 “그동안 한국 정부에선 브로커에 의한 입국 자제를 호소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돈을 주면) ‘한국으로 빨리 보내주겠다’ 또는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장은 “필리핀 정부가 브로커 단속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고용허가제 정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노동자들 역시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가겠다는 일념에 한국행에 대한 정보나 서류접수 등에서부터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닐라=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난달 12일 마닐라의 해외취업청(POEA)에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동자들로 크게 붐볐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POEA에 구직원서를 내기 위해 창구앞에 줄지어 서었다. /마닐라=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경험 쌓겠다”

각이 강했던 탓인지 CD와 테이프 등을 통한 한국어공부가 매우 재미있었다”며 “한국어시험도 어학원에서 2주를 배운 뒤 독학으로 패스할 만큼 흥미로웠다”고 했다.

랜다씨는 또 “대만에서 일할 때 만난 한국 친구를 보면서 한국으로 꼭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친절하면서도 믿음직스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랜다씨는 “대만에선 컴퓨터 하드웨어 조립 라인에서 일했는데 한국에선 어떤 일을 하게될 지 궁금하다”며 “비록 익숙치 않은 일이 맡겨지더라도 의욕적으로 일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랜다씨는 “3남4녀중 둘째로 어려서부터 가족을 부양해온 만큼 한국행에 대한 큰 두려움은 없다”며 “모쪼록 외국인을 잘 이해해줄 수 있는 한국인 업주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노동자 신분  
일 잘 할 자신 있어”

마이클씨는 또 “2003년부터 광주의 한 금형업체에서 일했는데 연수생인 탓에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만큼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클씨는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향수병이었는데 이번에는 잘 적응해낼 자신이 있다”며 “원래 활발한 성격인 데도 한국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에 심리적인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에선 필리핀 출신 동료들은 물론이고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며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 것도 한국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에서 3년간 열심히 일한다면 고향에서 작은 상점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미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잘해낼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들 장래 위해  
다시 한국행 결정”

학을 나오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차에 지난 2004년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며 “한국생활 3년은 하루 14시간이 넘는 고된 일과였지만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됐다는 점에서 더없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한국 입국 초기에는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을 많이했다”며 “경기도 군포의 아시아마트에서 구입한 음식재료로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한국행은 전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라며 “3년 뒤 고향으로 돌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상점을 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어느정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만큼 향후 3년간은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무엇보다 다시 한국으로 불러준 해광산업을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닐라=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ATOUR and KOREAN AIR. It features promotional text in Korean and English, along with several colorful boxes listing travel packages and prices. The packages include destinations like Shanghai, Hwangshan, and Jeju Island, with prices ranging from 449,000 to 829,000 KRW. The advertisement also includes the Korean Air logo and contact information.